

다원적 여성성: 히스테리, 피학성 또는 멜랑콜리?

Catherine Chabert

French Association (Association Psychanalytique de France)

피학적 인물, Hanna

그녀는 서른 살이었지만 어린 소녀처럼 보였고 어색해 보였으며, 험령하고 특징 없는 옷에 둘둘 쌓인 굴곡 없는 몸은 지장이 있어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직업적 삶은 정체되었고, 결혼생활은 언어적 폭력과 구타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쁜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박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술에 빠져있었다.

그녀는 딸로서 어머니를 만족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세 아들의 출생에 대해 기뻐했는데, 이 원기 왕성한 어린 소년들은 활력 넘치는 의욕과 눈부신 성공으로 모든 자리를 차지했다. Hanna는 이 남자애들 무리 속에서 자기를 잃을 때마다, 부재중이며 흥분시키는 아버지에게 매달렸는데, 유혹적이고 관능적인 그의 아내가 질투하며 그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Hanna가 절박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면 언제나 그는 거기에 있었다: 만약 누군가 그녀를 구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버지였다!

Hanna는 그녀의 상담시간을 옮길 수 없는 랜드마크처럼 활용했는데, 혹독한 자기-비난을 통해서 끝없는 불만들이 서식하는 공간 같았다. 그녀는 일상적 고통에 매우 애착을 느끼는 것 같았고, 심지어 그녀의 꿈조차도 그녀 삶의 궁핍한 현실을 일관되게 드러냈다-어둡고, 끈적거리고, 우중충한: 과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만연해 있는 피학성의 표현이 전이의 주요 실마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 어두운 세상 너머에서, 그녀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작은 희미한 불빛을 매우 빨리 꺼내놓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녀 안에 숨겨진 채로, 끊임없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보석들이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높은 지위, 어린 시절을 보냈던 호화로운 장소들, 다정하고 짧게 있었던 몇몇 보모들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가족들의 멋진 삶에 대해서 슬쩍 언급하곤 했다. 이름 없는 공주, 또는 가면 쓴 공주. 그녀를 보고 있으면 꿈도 꾸지 않고 잠든 신데렐라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요정 대모가 필요하지 않았다: 어떤 언어의 마술도 없었고, 나의 말이나 설명, 해석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는 잠자코 침묵하면서, 그녀가 멈

추지 않고, 한숨이나, 거창한 피날레 없이 그녀의 긴 슬픔을 독백으로 펼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간단히 말해, 나는 전이의 제단 위에서 그녀의 피학성과 멜랑콜리의 묘지를 지켜야 했다: 나는 “죽은 엄마”¹⁾가 되어야 했다. 즉, 불평과 요구에 영향받지 않고, 말이 없고, 가용하지 않은 엄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는 엄마가 되어야 했다.

Hanna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존재했던 적이 없고, 그들 사이에 설 자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 대우가 자신의 관점에서는 역설적으로 피해자인 증거라고 제시했다: 전직 장교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세 아들을 혹독하게 길렀고 그들의 문제행동이 선을 넘을 때마다 언제나 심하게 때렸다. 그러나 그는 Hanna를 절대 때리지 않았는데, 그녀는 자기를 때리지 않는 것을 소녀라는 것-남근이 없는 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상하게도 능동성과 수동성의 명백한 대치 속에서 남근적 주장(phallic claim)으로서 드러난 것은 얻어맞고 싶다는 소망이다.

Freud 사상의 변증법에서 충돌하고 결합하는 대립 쌍 중에서 남성성-여성성 대립은 패러다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성적 추동과 자기-보존적 추동의 구분은 점유(cathexes)의 분배를 통한 자아와 대상 간의 분화에 자연스럽게 힘을 싣는다(Freud, 1915). 그러나 타인, 외계인(alien)은 성별이 다른 존재이다. 따라서 차이에 대한 성적 표상의 융합 및 응축은 자아와 대상 간 차이의 표상의 그것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남성성-여성성 혼란은 또 다른 혼란을 반영할 수 있는데, 즉 자아와 대상 간의 차이를 소멸시키는 또 다른 경계의 상실을 의미한다.

분석방법은 여성성을 전개하는 이중적 경향성을 밝힌다: 하나는 완전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관계에 연결된 것(Freud 1923)이고, 하나는 대상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것이다. 여성성의 표상은 피학성 및 상실과 -사실상 너무 성급하게- 연결된 여성성의 변천에 내재된 멜랑콜리와 모성, 그 이상적이고 문제있는 보편성의 승리를 인정하는 강력한 주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상은 흥분시키며 관능적인 여성성이 전개되는 것, -잔인하지 않더라도 불쾌한- 유혹적인 힘에 고무되는 것과 페니스의 부재로 촉발된 반항 및 그것의 상징적 등가물에 불가피하게 의지하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표상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항문기 성과 절대적 영광의 영원함에 사로잡힌 어린 승리자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어머니의 그늘 안, 그 공허함 속에서, 여성성은 유아성의 고향이 되는데 여기에는 수동성과 무기력, 무력감이라는 심상의 호소가 포함된다. 그러한 심상이 나타내는 모성적 여성성은 필연적으로 삽입과 침입에 대한 환상과 불안감을 일으킨다. 이 여성성은 양쪽 성별에서 모두 나타나며 양성애와 그에 뒤따르는 동일시의 근본적인 퇴적 지점(sedimentation point)을 구성한다. 그것은 공유된 유아기의 핵심이며, 더 구체적

1) 이 용어는 André Green을 참조해 사용했다([1983] 1986).

으로는 모든 사람의 성적인 존재에서, 모두의 미래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모성의 변치 않는 특성으로부터 발달한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불가능한 분리가 동일시 과정을 지속하는 구조의 기초로서 초기 흔적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가? 항상-존재하는 어머니라는 변함없는 환상은, 유아의 모든 사고와 분리할 수 없으며, 인간 조건을 영원히 구성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점일까? 위니콧의 “순수한 여성성(pure feminine)”이란? 그 영원함이 관념성의 토대를 형성하는 태곳적부터의 모성인가; 또는 1910년에 Freud가 이론을 정립함에 따라(Freud 1910), 성(sexuality)의 출현 및 그것이 수반하는 좌절에 의해 추출된 이상적인 여성성을 말하는가? 사실, 초기의 불신을 지나서 어머니의 성을 발견하는 것은 극심한 실망과 좌절을 일으키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이상화된 어머니와 성적인 여성 간의 분열이라는 형태로 해소되며, “어머니와 창녀”라는 이분법 밑바탕에 기저하는 타락 대상이 된다.

*

자아 구조의 중심축이 되는(Freud 1923) 동일시는 시작부터 대상과의 연관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상은 분리될 수 없는데 동일시가 무의식적인 전유(appropriation) 작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자아는 부지불식간에 대상의 특성을 파악한다; 마찬가지로, 대상은 부지불식간에 어떤 특성을 부과함으로써 자아를 장악한다. 이 특성은, 자아가 수동적으로 동의하고, 그 자신이 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유의 이중적 측면은 성적인 동일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동일시는 과정 그 자체에 의해 동원되는 능동성과 수동성의 변증법에 의해 뒷받침된다.

대상 상실의 치료 양상을 살펴보면, Freud는 1915년부터 히스테리적 동일시와 자기애적 동일시를 구분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둘은 각기 애도와 멜랑콜리의 특징이 있다: 대상 점유(cathexis)는 히스테리적 동일시에서 지속되지만, 자기애적 동일시에서는 그렇지 않다(Freud [1915] 1917). 이 두 가지 유형은 서로 구별되지만, 공통의 뿌리를 갖는다. 자기애적 동일시는 가장 원시적인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히스테리적 동일시를 발달시키는 토대가 된다. 여성의 대상 선택에 더 많은 자기애적 가치가 부여된다는 Freud의 의견(1914)에 근거하여, 우리는 대담하게 여성적 유형(feminine kind)의 일차적인 자기애적 동일시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핵심 요소는 동일시와 상실의 동질성에서 나타난다: 애도와 멜랑콜리의 다양한 단계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Freud는 두 과정을 서로 연결하는 양가성을 주장하며, 애도에서는 리비도가 공격적인 충동을 묶어둘 수 있는 반면에 멜랑콜리에서는 대상에 대한 미움이 역효과를 일으켜 자아를 괴롭힌다는 것을 밝힌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하는 좌절(혹은 편견)은 새로운 대상에 대한 리비도의 전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실 대상과 자아의 동일시”(Freud [1915] 1917, 249)로 이어지며, 대상 상실은 자아

상실로 변환된다.

이에 반해, 히스테리적 동일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욕망 대상과의 동일시에 우선권을 준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딸은 어머니에게. 1921년, Freud는 신경증 증상의 구조에서 동일시가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동일시는 경쟁자 부모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죄책감의 영향”을 받는다(1921, 106): 따라서, 어린 소녀가 어머니처럼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는 경우라면, 그 기침은 처벌의 형태로 동일시를 달성하는 것이다 - “너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지금 그렇게 되었다 - 그 고통에 관한 한” (ibid.). 한편 (Dora의 사례에서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 아버지의 기침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대상 선택 대신에 동일시가 나타난 것이고, 대상 선택은 자기애적 동일시로 퇴행하였다.

완전한 오이디푸스 조직에서는, 갈등의 이중적인(twofold) 기원은 원래의 형태 또는 반대의 형태에 따라서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 이중의(double) 동일시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상 선택을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 이는 선호하는 집중(investment) 영역에서 둘을 교대로 부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저것보다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된 지향을 결정한다.

“히스테리적” 동일시 과정은 바로 이러한 상실의 맥락에서도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대상과의 지속적 연결에 대한 증거와 집중(investment)에 대한 저항의 증거이다. 대조적으로 자기애적 동일시는 대상에 대한 약한 원시적 점유(cathexis)에 의해 결정된다: 결핍 또는 실망의 상황에서 점유(cathexis)의 철회는 반-대상적 경로를 취하며 이는 자기애적 반전 과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 피학성과 멜랑콜리에 시달리는 여성상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은 대상이 남긴 흔적과 그것이 수반하는 의존성에 필사적으로 맞서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분석가에 대한 태도(address)는 전이의 기준점(transferential anchoring point)을 구성하며, 분석 과정을 촉진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추동과 관련된 활동을 즉시 동원한다.

*

Hanna와 나의 관계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그녀를 뒤덮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디서나 내 향수 냄새를 맡았다: 상담시간 중에, 그녀는 가위질 소리를 듣고는 내가 바느질 작업에 집중한다고 확신하곤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참았던 소변을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마치 가능한 오랫동안 나의 존재와 연관된 흥분 상태를 유지해야 했던 것 같았다. 그녀는 변했다: 그녀는 더욱 섬세하고, 깔끔하고, 우아해졌고,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여체를 보여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술을 끊었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았고, 골칫거리였던 남편을 떠났고, ‘쥐구멍’ 같던

집에서도 나왔다.

이러한 “성공”(분석의 성공?)의 영향은 머지않아 나타났다: Hanna는 극도로 부정적으로 그녀 자신을 비난했고, 감지할 수 있고 인상적인 힘으로, 자기-비난적 불만을 확대해서 전달했다. 이는 자신에게 가하는 모욕을 넘어서, 카우치 위에서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전달됐다. 그녀는 극도로 흥분해서 다리를 쿵쿵 부딪치곤 했는데 그것은 거의 강박적인 동작으로 다양한 전이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노출증적, 그것은 강력한 동성애적인 유혹의 의도가 있는 듯이 내 시선을 끌었다; 자가성애적, 그것은 혼자 만족하고 싶은 그녀의 소망을 반영했다; 일치하지 않는, 그것은 성적 흥분을 자살적인-멜랑콜리한 장황한 진술들과 연결지었다; 피학적인, 그것은 환상으로 나타났다. 내가 무자비한 고문가 역할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근본적으로 (전이의) 또 다른 방향은 나를 죽이고 싶어했다: Hanna는 동성애적 전이의 각성을 직면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그녀와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금욕의 형태를 적용했다. 그녀는 부적 전이 역시 외면하기 위해서, 내게 반복적으로 기계적이고, 차갑고, 교체할 수 있는 로봇의 기능을 부여했다: 나에 대한 미움을 인정하면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양가감정을 인정하게 될 것이므로, 그녀의 전이 사랑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Hanna는 끝없이 그녀의 실패와 무가치함, 반복되는 패배를 주장했다: 그러더니 또 다른 불만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좀 더 리비도적 불만이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능함과 나를 화나게 할까봐 느끼는 불안감- 나의 인내심은 그녀에게는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별주기 위해서 때리길 원하는군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런데 무슨 죄로?” 그러자 그 괴로웠던 기억이 돌아왔다: 그녀는 남동생과 강가에서 놀고 있고,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다;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그녀는 무자비하게 동생을 물속으로 내던진다.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그녀는 아버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평소에 아들을 꾸짖을 때의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기 드문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녀를 때린다. 그녀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Hanna는 동생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녀가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의 장면이 - “딸이 아버지에게 맞고 있다”- 그녀가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고 반복하고 싶었던 장면일까?

Freud에 의하면, 그의 첫 번째 이론부터 꾸준히, 유혹은 필연적으로 아이의 수동성을 암시한다: 신경증적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결정적 외상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욕망에 종속된 자리에 둔다. ‘도착적인’ 어른인 아버지가 힘의 적극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딸은 수동적으로 남게 된다. 유혹 환상의 히스테리적 구조의 특이성은 뒤집어 말하기를 드러낸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이 설명은 딸

의 근친상간적 소망을 억압하고, 그녀의 순결함을 보호한다: “범죄적인” 유혹적 행동은 그녀를 피해자로 만든 남자의 책임이다(Freud [1895] 1950, 350).

그러나 수동성을 견딜 수 없게 될 때, 행동으로의 역전(reversal)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고 유혹은 앞으로 내가 “멜랑콜리”라고 칭할 형태로 새겨지기 시작하는데(Chabert 2003), 이는 자신이 수동적으로 아버지에게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확신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책감과 처벌받고 싶은 욕구인데, 이는 피학적인 압박감과 강박적이고 희생적인 금욕으로 촉진된다: 유혹 환상은 치명적인 보복 조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자기-비난 과정에 의해 전달되는 멜랑콜리한 기류로 가라앉는다. 이러한 환상적 형태에서, 도덕적 피학성은 근친상간적 유죄선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사랑의 상실 및 대상에 대한 파괴적 공격이 자아를 향해 반전된 미움과 관련된 주요 불안으로 이끌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혼합되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해로운 폭력이 되는 것이다. 그 외상은 내생적인 근원으로 지속되어 멜랑콜리한 여성이 자극에 과민해져서 분명한 성 문제 치료로 이어지곤 한다: 잔인한 초자아가 부과한 죄책감 및 처벌 욕구가 소녀에게 범죄자이면서도 고문관이라는 이중 기능에서 적극적인 위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

소년과 소녀의 확연한 차이점은 대상 선택의 역동에서 나타난다: 소년의 경우, 대상 선택이 변하지 않는데, 즉 어머니는 특권을 가진 사랑 대상으로 남게 되고,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근친상간의 금지는 확정되며, 분리 및 보호를 통해 죄책감이 덜어진다. 소녀의 경우, 초기에 어머니와의 유대감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대상 선택이 변하는데, 이는 이미 어머니에 대한 배신일 수 있으며, 게다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소망으로 인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²⁾. 이때 높은 위험이 발생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잃고, 자기애적 집중(investment)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애정적인 돌봄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시의 첫 번째 퇴적물(sediment)에 중요한 것이 걸려있는데, 이는 존재감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추동-관련 힘을 모으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다. Hanna의 경우, 피학성과 멜랑콜리의 응축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어머니의 영속성을 보장했다; 오직 전이 경로와 분석에서 그 열정의 경험만이 그녀를 점차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게 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이 없고 얼어붙은 어머니 자리를 주었지만, 그녀가 내게 부과한 (그리고 내가 견뎌낸) 수동성은 아마도 동성애적 전이를 통해서 소멸된 리비도의 흔적과 그녀가 아버지, 어머니와 형성한 근본적으로 근친상간적 특성을 어렵게 일깨운 것 같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치료에서 분석가가 구현한 좌절, 만족과 불만족의 이중적 경험은 추동-관련 충동이 그들이 포기되었던 장면으로 다시 집중하게끔 이끈다. 분석가에 대한 태도는 대상과 관련한 고

2) “[소녀]는 마치 피난처로 향하듯 오이디푸스 상황에 들어간다” (Freud 1933, 129).

통의 분담을 환기시켰고, 나르시시즘과 그 잔인함이 만연한 도덕적 피학성과 멜랑콜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다.

Athenais, 히스테리 대 멜랑콜리

그녀는 키가 큰 아름다운 소녀이며, 활기차고 쾌활하며, 솔직하고, 놀랍도록 편안하다. 그녀는 성인여성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풍만한 곡선과 얼굴에서 드러나는 풍요로움, 윤기 나는 꿀빛 머리가 더해주는 관능미에 편안함을 느끼는 진정한 여성이다. 그녀는 20세이다. 그녀의 언니는 1년 전 오랜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첫사랑에게 성적으로 당하고 버림받은 직후였다. 그녀는 아낌없이 울지만 아주 빠르게 눈물을 닦고 매우 거친 언어로 분노에 휩싸인다:

그녀는 큰 소리로 남성에 대한 증오와 남자들이 그들을 제압하게 두는 복종적인 여성들의 연약함에 대해 동등한 증오를 선언한다. 언니의 성폭력이자 죽음은 가치절하(debasement)로서 경험되었고, 이 젊은 여성의 자아는 무사히 벗어날 수 없었다.

1910년, Freud는 남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견을 공식화한다: 상황에서 지배적인 것은 사랑인데, 즉 높이 평가되면서 지독하게 방어되는 부정한 여성에 대한 성적 열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녀”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는 그녀의 훌륭함이 순결을 미화하고, 성적인 차원을 교묘히 피하게 하는데, 어쩌면 발생할지도 모르는 과도한 실망감 때문에, 그리고 더욱 견디기 힘든 질투심을 드러냈을 때 최악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다: 즉, 그녀의 사랑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사랑으로 창녀가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암시하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그렇다.

그렇다면 대칭적으로, 소녀들이 대상 선택을 하는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Freud가 남자와 관련해 묘사한 특징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20세기 초의 성도덕 아래에서 그가 정면으로 질문할 수 없었을까? 그에게 히스테리 모델은 여성의 성에서 만연하고, 1914년 나르시시즘 입문 이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기초하여 여성의 대상 선택의 특정 유형 간에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유형의 남성이 부정한 여성과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가? 어떤 이상화가 있는가? 여성은 사랑하는 남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소망이 있는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절하와 그 가학적 요소는 대상의 나르시시즘을 파괴하는 부분-관련될 수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여기로 이끌 수 있다. 애도와 멜랑콜리([1915] 1917))에서 Freud는 멜랑콜리의 자기애적인 전환이 자아를 향한 엄청난 공격

성으로 이어지고, 자아는 모든 결점과 모든 죄로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더욱 강력한 강도로 나타나는데, 기소된 “가난한 자아”를 넘어서 사실상 공격받는 것이 자아가 융합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멜랑콜리한 충동에는 자아의 가치절하가 있는데, 이는 모든 가능성에서 성적 열정에서 사랑 대상의 가치절하를 상당히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Freud는 멜랑콜리 역동의 완성에서 중심이 되는 경험으로 대상에 대한 실망이 있다고 주장한다: Freud가 남성 대상 선택의 특정 유형을 이상화와 가치절하의 놀라운 공존과 연결지은 것도, 어머니의 성이 노출되면 실망하게 될 위험성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도 딸의 눈에서 그에 대한 가치절하로 동등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 또는 이런 실망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항상 어머니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Athenais*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녀는 서투르고 성격이 나쁜 소녀였는데, 특하면 넘어지고, 언제나 실패하곤 했고, 매우 아름답고 빛나고, 기민한 그녀의 언니(그리고 어머니?)와는 정반대 이미지였다. 그녀는 드레스가 찢어지고, 무릎에 상처 딱지가 덮여있던 것도 기억한다. 그녀는 학교에서 머리의 이를 잡고, 격리당하고, 그 기생충들을 없애는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기억한다. 어머니가 자포자기하여 그녀의 긴 머리를 자르기로 결심했던 참혹한 순간도 여전히 기억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던 그 순간에 그녀는 낯선 소년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형편없는 학생이고,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공책은 얼룩이 가득하고, 손글씨는 조잡하고, 읽기는 머뭇거리고, 산수는 부족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자신보다 겨우 한 살 많지만, 항상 모든 면에서 그녀를 앞섰고, 자신의 미소와 광채를 아낌없이 뽐내던 언니를 기억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린다: 어제 그녀는 언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언니가 평소 좋아했던 간식, 함께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작가의 최신 소설을 가져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Athenais*는 이해할 수 없는 허리통증을 경험하고, 그녀의 온몸은 얻어맞아서 멍이 든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맞은 적이 없고, 오히려 그녀야말로, 폭력이 그녀를 압도하는 분노와 실망의 순간에 연인을 때리게 된다고 한다. 어떤 가혹한 말도 그들을 약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들기에 충분치 않고, 어떤 잔인한 말도 그들을 경멸하거나 깎아내려 불능(*impotence*)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녀가 유혹하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 그녀가 쟁취해낸 바로 그 사람이 곧 만신창이가 되고, 역겨운 쓰레기가 - 이상화의 정반대, 즉 반-이상화의 미심쩍은 형태와 동등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수치심의 뿌리를 어린 시절 한때 매력 없고 보기 흉한 소녀였던 모습에서 찾고자 했다. 그녀는 급격하게 변한 이후에도 이전의 똥똥보, 멍청이, 끔찍한 애를 버

리지 않고 자기 안에 계속 품고 다녔다. 청소년기에 모든 것이 변했다: 몇 달 사이에, 사춘기가 미운 오리 새끼를 변신시켰다. 그녀는 마법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생기 있고 유명한, 자신이 좋아하고 끌리는 것을 찾고 따라가는 똑똑한 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의 정점에 닿을 수 있을 것이며 정복하고 성취한 것들을 계속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깊고 어두운 구멍 속에 있다. 내가 물었다: “그 깊고 어두운 구멍 속에, 당신 언니와 같이 있나요?”

그녀는 나에게 격분하며 죽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며,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임무를 가지고, 이전 사람들처럼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새로운 상대를 찾으려 갔고, 내가 보기엔 마치 시리즈물에서 정해진 역할을 하는 인물 같다: 이전 사람들처럼, 그가 그녀의 지적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빨리 드러날 것이다. 몇 달이 지나면, 그녀는 그를 떠나고 모든 것은 처음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처음에 제시한 소녀의 특정한 대상 선택과 관련한 질문의 관점에서 볼 때, Athenais가 그녀의 부족한 상대를 지키려는 소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녀는 종종 “나쁜 남자”, “플레이보이(여자만 쫓아다니는 남자)”를 고르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그녀는 이따금 그들의 지적, 문화적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주 금방 질린다: 그들은 그럴 가치가 없고, 너무 서투른 것이다. 만약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구하는 것은, 어머니와의 경쟁에 대항하여 그녀를 보호하는 희생적 동일시이다. 그러면 대상의 가치절하는 마치 “열린(아물지 않은)” 상처의 영향이 거대한 자기애적 역-점유(counter-cathexis)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멜랑콜리 콤플렉스” (Freud [1915] 1917, 253)의 전형적인 기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자아가 고갈되고 빈곤해질 정도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끌어낸다.

Athenais는 어떤 점이 멜랑콜리한가? 가끔 무너질 때 외에는, 아마 정반대의 모습들이 그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다: 과잉활동, 연극적이고 활기 넘치는 표현, 단정적인 톤, 힘 있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은 가끔 히스테리적 표현주의 그 이상이다. 조심스럽지만 Athenais는 심지어 조증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즐거운 혼란의 반대편, 자아의 무한한 가치절하, 자아 아래의 고통스러운 죄책감과 죽음의 유혹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감정 기복의 한 중간에서 성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 강박적인 추구에서, 나는 어마어마하고도 부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요구를 알아차린다. 점점 더 자주, Athenais는 외로움을 표현하고, 언니의 죽음을 탓한다: 좀 더 친밀한 수준에서, 그녀는 내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 대한 소심한 소망을 말하면서 그녀의 대단한 목표가 아닌 어린 소녀 시절의 꿈의 조각을 살짝 이야기한다.

Athenais는 우리의 첫 상담시간에 자기 인생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다: “제 진정한 사랑은 아버지예요: 네,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오이디푸스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여자니까, 남들한테 한 얘기를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절 사랑했고,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줬어요. 심지어 제가 못생기고 멍청할 때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저를 사랑할지 상상이 되나요! 그는 절 사랑하고 전 절대로 그걸 포기 안 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사랑 뒤에는 어머니에 대한, 불멸의 사랑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전치(displacement)는 분석을 요구하는 경로를 제공했으며 전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길고 집중적인 분석 작업 이후에 Athenais는 그녀를 위해 이혼한,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상의 남자와 결혼했다; 그들은 아주 사랑하는 두 아이를 가졌다. 행복한 결말일까?

그녀는 분석이 끝난 후에도 이따금 나를 만나러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남자를 만났고, 그녀의 삶은 성적인 열망에 의해 파괴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항상 같은 이유로 그녀의 새로운 연인을 떠난다: 그녀는 성적으로 매우 열중하지만, 그는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만남은 매번 그녀를 평온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반복의 해석은 대상의 분열 속에서 항상 활성화되고, 작동하는 오이디푸스적 열정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쉽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머니와 창녀, 아버지와 지골로. 주인공들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Athenais가 반복하는 것은 같은 환상이 아닐까? 바람맞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피우는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이제까지 얻지 못한 질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그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쇠퇴(decline)에 대한 Freud 이론의 관점이 사실임을 확인해준다: 소년에게서는 파괴되고, 소녀에게서는 초자아의 약점을 반영하며 불완전하게 남을 수 있다고 봤다³⁾.

전이에 대해서, Athenais의 욕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분석이 끝난 후에도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대체될 수 있으며, 사랑에 대한 그녀의 잠재력은 여전히 예리하게 남아 있으며, 새로운 대상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이유가 뭘까?

이 분석의 기묘한 끝은 전이 사랑이 실제로 무엇을 배출하는지를 밝혀주고, 전이 사랑이 그것 안에 살아남아 있는 추동-관련 격렬함을 지닐 때, 사랑의 용솟음을 통해 치료에서뿐만 아니라 치료를 넘어 삶에서 그것의 잔여물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밝

3) 나는 여성의 초자아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는데, 그 초자아의 행동은 과도한 죄책감 및 처벌 욕구와는 구별될 수 있다.

혀준다. 이 부분은 새로운 대상에 대한 강박적 추구에 새겨진, 사랑에 대한 조급함 (impatience)으로 변형된다: “조적” 사랑 -이라고 나는 부르고 싶다(Chabert 2017) - 이는 종종 상실, 유기, 분리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금지된 그와 관련된 모든 정동, 슬픈 정동들을 감춰버린다. 사실상 이것은 마치, 그것을 위한 어떠한 장소도 없고, 망명할 권리도 없는 것과 같은데,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이 결코 없으며, 영혼의 영토 밖으로 영원히 유배당하고, 도망칠 수 없게 추방당한 것과 같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대상 선택의 연속적인 반복은 때때로 오이디푸스의 비극을 실천한다. 그것은 사랑 대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배반하는 열정인데, 사랑 대상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꺼지지 않는 두려움이 단순히 지속되기 때문이다.